# 아동의 성장단계별 돌봄 실태와 정책적 함의

Childcare and Its Policy Implications:
A Developmental Milestones Approach

**최효진**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전문연구원

가족형태의 다양화,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 증가, 고용형태 다양화, 생활패턴 변화 등으로 자녀 돌봄 서비스에 대한 욕구가 다양해지고 있다. 본 고에서 자녀 돌봄 방식을 분석한 결과, 자녀가 어릴수록 조부모나 친인척 등 인적자원의 도움을 받는 경향이 높게 나타났고, 자녀의 성장단계에 따라 돌봄 방식에서 실제와 희망 간 불일치도 일부 발생하고 있었다. 불일치 정도가 높을 경우 자녀 양육 가정에게 경제적·심리적 부담을 안겨줄 것이며, 더 나아가 추가 출산 포기로까지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따라서 불일치의 원인에 대해 돌봄서비스 공급 방식뿐만 아니라 서비스, 만족도 등 다양한 측면을 고려하여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자녀 성장단계에 따라 돌봄 서비스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켜줄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 1. 들어가며

탈산업사회로의 전환, 고용구조 변화, 여성인력 필요성 증가 등은 일인부양체계의 유지를 어렵게 하였다. 여기에 더해 고학력화, 전통적 성역할 분업주의 약화 등으로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가 증가하였다.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증가는 과거 여성이 가정 내에서 주로 담당하였던 돌봄에 대한 공백을 발생시켰고, 이로 인해 돌봄에 대한 사회적 책임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에 따라 각 국가는 아동 돌봄에 대한 철학이나 문화, 사회경제적 상황 등에 따라 공적 양육지원체계를 마련하고 있다.

자녀 돌봄 형태는 국가의 양육지원체계, 부·모의 선호도나 이들이 가진 자원의 양과 질에 의해 결정될 것이다. 국가의 공식적 양육지원체계가 가정의 욕구를 충족시켜 주지 못할 경우, 가구는 가지고 있는 자원이나 상황에 맞춰 돌봄 욕구를 해소하려 할 것이다. 이러한 과정에서 자녀 돌봄이 커다란 부담으로 인식될 경우, 자녀 양육 가정에서는 출산을 축소하거나 포기할 수 있다.

이 글에서는 「2015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이하 출산력조사)」 자료를 분석하여 가구의 자녀 돌봄 실태를 파악하고자 한다. 동 조사의 경우 기혼여성(15~49세)의 출산수준과 출산행태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요인들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것이 주된 목적으로 자녀 돌봄 방식에 대한 다차원적 조사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러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유자녀 가정을 대상으로 부부간 육아 분담, 조부모 및 친인척의 돌봄 지원, 어린이집 이용 등에 대한 실태를 조사함으로써 자녀 양육 가정의 돌봄에 대한 욕구와 실태를 파악할 수 있다. 본 고에서는 돌봄주체별(공식적/비공식적 지원망) 양육 지원 실태 분석과 아동의 성장단계(영아기, 유아기, 초등학교 저학년)에 따른 실제 돌봄 방식과 희망 간의 일치도를 진단하고자 한다. 끝으로 이들 결과를 토대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 2. 비공식적 자원의 자녀 양육 지원 실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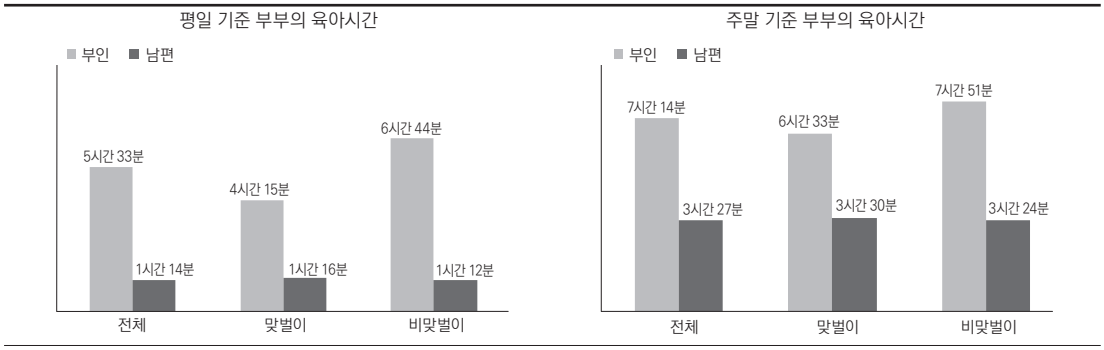
### 가. 부부 간 육아 분담

초등학교 재학 이하의 자녀를 둔 부부의 육아시간[1]을 살펴보면, 평일 기준으로 부인(5시간 33분)이 남편(1시간 14분)보다 4시간 19분을 더 투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부 간 육아시간의 차이는 맞벌이가구인 경우 2시간 59분, 비맞벌이가구인 경우 5시간 32분으로 맞벌이 가구에서 부부간 육아시간 차이가 상대적으로 작게 나타났다. 이와 같은 부부간 차이의 감소는 남편의 육아시간 증가(4분)보다 부인의 육아시간 감소(2시간 29분)가 더 크게 기여하였다. 남편의 대부분이 경제활동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맞벌이 여부에 따른 남편의 육아시간은 큰 차이가 없다. 다만 부인이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경우 남편의 육아시간이 다소 증가하고, 양육 관련 서비스 구입 등을 통해 부인의 육아시간은 감소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1) 참고로 통계청의 생활시간조사에서도 부부간 가사노동(가정관리, 가족 및 가구원 돌보기) 시간에 대하여 조사를 하고 있다. 통계청(2015)의 2014년 생활시간조사 결과에 의하면 미취학자녀(미취학 10세미만)가 있는 부부의 가사노동시간은 남편 1시간 19분, 부인 6시간 37분으로 나타난다. 이와 같은 차이는 분석대상 및 정의에 의한 차이일 것이다. 요컨대, 통계청에서는 미취학자녀를 둔 부부로 한정하였으나 출산력조사에서는 미취학뿐만 아니라 초등학교 재학 자녀를 둔 부부도 포함하고 있다. 통계청에서는 가정관리시간까지도 포함하였으나, 출산력조사에서는 한 공간에서 자녀를 신체적·정신적으로 보살피는 시간(수면시간은 제외하였으며, 부부가 같이 돌보는 시간은 부와 모 각각의 육아시간으로 포함)에 대하여 질문하고 있다. 또한 통계청에서는 평일과 주말 구분 없이 집계하였으나, 출산력조사에서는 평일과 주말을 분리하여 집계하고 있다.

주말의 육아시간은 부인과 남편 모두 증가하였다. 부인의 경우 주말 육아시간은 평일에 비해 1시간 41분 증가한 7시간 14분, 남편의 경우 2시간 13분 증가한 3시간 27분으로, 여전히 절대적인 양으로는 부인의 육아시간이 남편에 비해 많지만 증가 폭은 남편에게서 더 크다. 맞벌이가구의 경우에는 평일에 비해 부인은 2시간 18분, 남편은 2시간 14분을 육아에 더 투입하고 있다. 부부 간 육아시간의 차이는 평일에 비해 32분 줄어든 3시간 47분(맞벌이가구 3시간 3분, 홑벌이가구는 4시간 27분)으로 나타났다.

**그림 1. 초등학교 재학 이하 자녀를 둔 부인(15~49세)과 남편의 평일 및 주말 육아 시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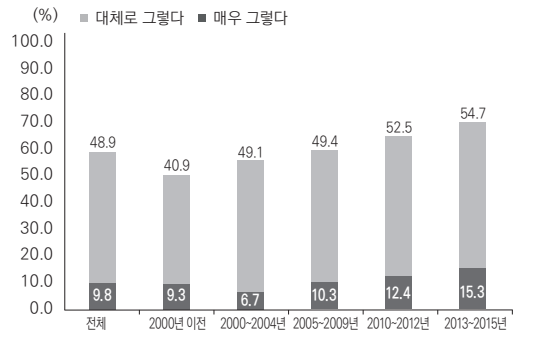



주: 주말 육아시간은 토요일과 일요일 육아시간의 평균 값임.
자료: 이삼식 외(2015)., 2015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육아에 대한 공평 분담을 절대적인 육아시간의 양으로만 측정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육아 분담은 부부의 근로여부, 근로형태, 근로시간 등 가구의 종합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결정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이유로 남편의 육아시간이 부인에 비해 적게 나타났다 하더라도 이를 바탕으로 육아가 불공평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유배우여성(15~49세)이 주관적으로 인지하고 있는 남편과의 육아 분담 정도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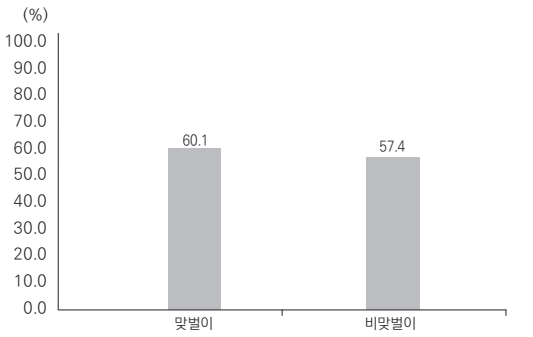
유배우여성의 58.7%(매우 공평하게 분담하고 있다 9.8% 포함)는 남편과의 육아가 공평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육아분담이 공평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최근에 결혼한 코호트일수록 높게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2013~2015년에 결혼한 코호트의 70%가 남편과의 육아 분담이 공평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응답한 반면, 2000년 이전에 결혼한 코호트의 경우에는 50.2%로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맞벌이 여부에 따라서는 맞벌이가구의 부인(60.1%)이 비맞벌이가구의 부인(57.4%)에 비해 육아가 공평하게 분담되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그림 2. 유배우여성(15~49세)의 결혼코호트별 부부 간 육아 분담에 대한 인식 (공평하게 분담하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




주: 초등학교 재학 이하의 자녀를 둔 유배우여성(15~49세)을 대상으로 질문하였음.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5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 원자력 분석.

**그림 3. 유배우여성(15~49세)의 맞벌이 여부별 부부 간 육아 분담에 대한 인식 (공평하게 분담하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




주: 초등학교 재학 이하의 자녀를 둔 유배우여성(15~49세)을 대상으로 질문하였음.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5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 원자력 분석.

앞서 살펴보았듯이 최근에 결혼한 부부일수록 부부간 육아 분담이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높게 나타났으며, 평일 남성의 육아시간은 여성의 1/4수준에 불과하나 주말에는 남성의 육아시간이 여성의 1/2에 가까운 수준까지 증가하였다. 양성평등 문화 등의 영향으로 남성의 육아참여도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육아에 투입하는 절대적인 시간은 여성이 남성보다 많고, 특히 부부 모두가 취업을 하는 경우에도 여성의 육아시간이 남성에 비해 많다. 이는 육아에 대해 여성에게 의존도가 여전히 큰 현실을 반영하고 있으며, 일·가정 양립의 어려움도 간접적으로 살펴볼 수 있다.

### 나. 부모의 돌봄 지원

대게 자녀가 아주 어려 시설을 이용하기 어려운 경우 등에 있어서는 인적자원 특히, 부모(친정부모 또는 시부모)의 돌봄 지원에 의존하는 경향이 있다. 유자녀 기혼여성(15~49세) 중 1/4 정도는 부모로부터 가사나 자녀돌봄에 대하여 도움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로부터 육아·가사의 도움을 받으면서 부모에게 금전적인 지원(생활비, 여가비, 자녀돌봄비 등)을 하는 경우는 23.0%로 나타났다. 이 외에 부모로부터 육아·가사 지원은 받고 부모에게 경제적 지원은 하지 않는 경우는 1.9%, 부모로부터 육아·가사의 지원은 받지 않고 부모에게 경제적으로 지원하는 경우는 69.2%, 부모로부터 육아·가사 지원을 받지 않고 부모에게 경제적 지원도 하지 않는 경우는 5.9%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부모에게 집안일이나 자녀돌봄에 대한 도움을 받는 경우, 대다수가 부모에게 경제적으로 지원하는 이른바 교환관계가 형성되어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이러한 교환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비율은

막내 자녀가 어릴수록 높게 나타났는데, 구체적으로 막내가 영아(0~2세)인 경우, 42%가 부모로부터 양육 지원을 받으면서 부모에게 경제적인 지원을 하고 있다.

기혼여성(15~49세)이 비취업 중인 경우(19.2%)에 비해 취업 중인 경우(24.4%)에 교환관계를 형성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막내가 영아(0~2세)인 경우, 부모와 교환관계를 형성한 비율은 비취업 시 35.1%, 취업 시에는 절반이 넘는 54.1%로 나타났다. 막내가 유아(3세~취학전)인 경우에도 그 수준이 낮을 뿐 유사한 패턴을 보였다. 즉, 부모와 교환관계를 형성한 비율은 비취업여성 22.6%, 취업여성 41.2%였다.

요컨대, 자녀가 어릴수록 부모에게 도움을 받고 있었으며, 이러한 경향은 특히 취업여성에게서 더욱 높게 나타났다. 자녀가 어릴수록 시설보다는 가정 내 양육에 대한 선호가 높으며, 그러한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경제적 지원(보답)을 통해서라도 부모에 대한 의존도가 높음을 확인할 수 있다.

**표 1. 유자녀 기혼여성(15~49세)의 지난 6개월 동안 부모(친정부모 또는 시부모)와의 지원 관계**

(단위: %, 명)

| 구 분 | 부모로부터 돌봄 지원–부모에 경제적 지원 | 부모로부터 돌봄 지원–부모에 경제적 지원없음 | 부모로부터 돌봄 지원 없음–부모에 경제적 지원 | 모두 없음 | 계(명) |
|---|---|---|---|---|---|
| 전체 | 23.0 | 1.9 | 69.2 | 5.9 | 100.0(7,586) |
| 막내아 연령($\chi^2$=971.8***) | | | | | |
| 0~2세 | 41.7 | 3.9 | 48.0 | 6.4 | 100.0(1,929) |
| 3세~취학전 | 31.8 | 2.6 | 59.9 | 5.7 | 100.0(1,444) |
| 초등 1~3학년 | 18.1 | 1.5 | 75.3 | 5.1 | 100.0(1,089) |
| 초등 4~6학년 | 12.7 | 0.7 | 79.8 | 6.7 | 100.0( 862) |
| 중학교 이상 | 7.3 | 0.5 | 86.8 | 5.3 | 100.0(2,220) |
| 취업여성 전체 | 24.4 | 1.6 | 68.8 | 5.2 | 100.0(4,398) |
| 막내아 연령($\chi^2$=690.1***) | | | | | |
| 0~2세 | 54.1 | 3.2 | 37.3 | 5.3 | 100.0( 678) |
| 3세~취학 전 | 41.2 | 2.1 | 51.8 | 4.9 | 100.0( 716) |
| 초등 1~3학년 | 24.7 | 2.2 | 69.0 | 4.2 | 100.0( 596) |
| 초등 4~6학년 | 14.6 | 0.7 | 79.5 | 5.2 | 100.0( 536) |
| 중학교 이상 | 9.1 | 0.6 | 85.8 | 4.5 | 100.0(1,448) |
| 비취업여성 전체 | 19.2 | 2.1 | 71.4 | 7.3 | 100.0(3,861) |
| 막내아 연령($\chi^2$=431.5***) | | | | | |
| 0~2세 | 35.1 | 4.2 | 53.8 | 7.0 | 100.0(1,251) |
| 3세~취학 전 | 22.6 | 2.9 | 68.0 | 6.6 | 100.0( 727) |
| 초등 1~3학년 | 10.3 | 0.6 | 82.8 | 6.3 | 100.0( 494) |
| 초등 4~6학년 | 9.5 | 0.9 | 80.4 | 9.2 | 100.0( 326) |
| 중학교 이상 | 3.9 | 0.4 | 88.9 | 6.9 | 100.0( 772) |

* $p<0.05$, ** $p<0.01$, *** $p<0.001$

주: 1) 한 가구 내 2가지 이상 유형이 있는 경우에는 '부모에게 경제적 지원–부모로부터 돌봄 지원', '부모로부터 돌봄 지원–부모에 경제적 지원 없음', '부모로부터 돌봄 지원 없음–부모에 경제적 지원', '모두 없음' 순으로 우선순위를 부여하였음.

2) 무응답은 분석에서 제외되었으며, 승수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자료: 이삼식 외(2015)., 2015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다. 기타 친인척의 돌봄 지원

부모를 제외한 기타 친인척에게 자녀 육아에 대해 지원을 받은 비율은 전체 유자녀 기혼여성(15~49세)의 3%로 부모에 비해 아주 낮게 나타났다. 막내자녀가 어릴수록 친인척으로부터 자녀양육에 대해 도움을 받는 비율이 높았다. 구체적으로 막내자녀가 영아(0~2세)인 경우에는 7.3%가 친인척으로부터 자녀 돌봄에 대해 도움을 받은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2. 유자녀 기혼여성(15~49세)의 지난 6개월 동안 자녀 돌봄을 위해 기타 친인척으로부터 도움 받은 비율**

(단위: %, 명)

| | 있음 | 없음 | 계(명) |
|---|---|---|---|
| 전체 | 3.0 | 97.0 | 100.0(10,241) |
| 막내아 연령($x^2$=275.3***) | | | |
| 0~2세 | 7.3 | 92.7 | 100.0( 2,060) |
| 3세~취학 전 | 4.9 | 95.1 | 100.0( 1,668) |
| 초등 1~3학년 | 2.9 | 97.1 | 100.0( 1,361) |
| 초등 4~6학년 | 2.5 | 97.5 | 100.0( 1,177) |
| 중학교 이상 | 0.0 | 100.0 | 100.0( 3,849) |

* p<0.05, ** p<0.01, *** p<0.001
주: 1) 무응답은 분석에서 제외되었으며, 승수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자료: 이삼식 외(2015)., 2015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3. 아동의 성장단계별 주간 돌봄 행태

아동의 성장단계에 따라 부모가 선호하는 돌봄 방식에는 차이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선호도는 실제 자원의 활용 가능성, 돌봄 방식에 대한 접근성, 가구상황(소득수준, 맞벌이 등) 등에 따라 충족되는 정도가 달라질 것이다. 이하에서는 아동의 성장단계(영아기, 유아기, 초등학교 저학년기)에 따른 실제 돌봄 실태를 살펴보고, 이러한 방식과 부모의 선호도가 어느 정도 일치하고 있는지 분석하고자 한다.

## 가. 아동의 성장단계별 주간 돌봄 실태

### 1) 미취학 자녀의 주간 돌봄 실태

주간에 0세 자녀를 돌보는 주된 돌봄 방법[2]으로 부모가 83.4%로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 조부모(9.3%), 어린이집 및 유치원(4.4%)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0세 자녀의 95.2%는 인적자원(부모, 조부모, 기타 친인척, 베이비시터)에 의해 돌봄이 이루어지고 있다. 1세 자녀의 주된 주간 돌봄 방법으로는 56.8%(부모 48.4%, 조부모 7.1%, 기타 친인척 0.7%, 베이비시터 0.6% 등)가 인적자원을 활용하고 있었으며, 시설 돌봄은 43.2%(어린이집 및 유치원 39.8%, 기타 시설 3.4%)로 나타났다. 2세아부터는 시설 이용 비율이 높아지고, 주간의 주된 돌봄으로 시설을 이용하는 비율이 83.4%로 높고, 인적돌봄으로서 부모 13.7%, 조부모 2.2% 등으로 나타났다. 3세아부터는 94% 이상이 주간 돌봄으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등 시설을 이용하고 있었다. 요컨대 아동의 연령이 적을수록 인적자원에 의한 돌봄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반면, 아동의 연령이 많을수록 시설 돌봄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3. 기혼여성(15~49세)의 취학 전 자녀의 실제 주간에 맡긴 곳 또는 사람(가장 주된 것, 아동 기준)**

(단위: %, 명)

| 구 분 | 어린이집 유치원 | 학원, 놀이방 등 시설 | 베이비시터 | 조부모 | 기타 친인척 | 부모 | 기타 | 계(명) |
|---|---|---|---|---|---|---|---|---|
| 전체 | 71.8 | 2.5 | 0.4 | 2.7 | 0.3 | 22.3 | 0.0 | 100.0(5,048) |
| 아동연령 | | | | | | | | |
| 0세 | 4.4 | 0.3 | 1.5 | 9.3 | 1.0 | 83.4 | 0.3 | 100.0( 733) |
| 1세 | 39.8 | 3.4 | 0.6 | 7.1 | 0.7 | 48.4 | - | 100.0( 705) |
| 2세 | 80.1 | 3.3 | 0.5 | 2.2 | 0.2 | 13.7 | - | 100.0( 830) |
| 3세 | 93.8 | 1.4 | - | - | - | 4.8 | - | 100.0( 775) |
| 4세 | 95.8 | 2.6 | 0.1 | - | - | 1.4 | - | 100.0( 843) |
| 5세 | 96.9 | 2.9 | 0.1 | - | - | 0.1 | - | 100.0( 732) |
| 6세 이상 | 94.2 | 4.0 | - | 0.2 | - | 1.6 | - | 100.0( 428) |

자료: 이삼식 외(2015)., 2015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 출산력 조사에서는 미취학 자녀의 주간 돌봄 방식을 파악하기 위하여, 주간(오후 7시 30분 이전)에 실제 맡기고 있는 기관이나 사람에 대하여 질문하고 있다. 만약 여러 기관(또는 사람)을 이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가장 많은 시간 동안 자녀를 맡기고 있는 기관 또는 사람을 응답하도록 하고 있다.

기혼여성의 가구특성별 돌봄 방식의 차이를 살펴보도록 한다(표 4). 미취학 자녀 중 가장 어린 자녀가 영아(0~2세)인 경우로 한정하여 가구특성별 주간 돌봄 방식의 차이를 살펴보면, 맞벌이가구인 경우 절반 이상이(57.9%)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등의 시설을 이용하고 있었으며, 조부모를 통한 돌봄은 15.0%로 나타났다. 비맞벌이가구인 경우에는 33.8%가 시설을 이용하고, 나머지 대부분은 부모가 직접 돌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소득수준에 따른 어린이집 등 시설 이용 정도의 차이는 뚜렷하지 않으나, 가구소득수준이 높을수록 인적자원(조부모, 베이비시터 등)에 의한 돌봄 비율이 높게 나타났고, 부모의 직접 돌봄은 대체적으로 낮아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는 가구소득수준이 높을수록 맞벌이가구일 가능성이 높고, 이에 직접 돌봄보다는 다른 인적자원에 의한 돌봄을 통해 자녀를 양육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표 4. 기혼여성(15~49세)의 가구특성별 0~2세 자녀(막내자녀 기준)의 실제 주간에 맡긴 곳 또는 사람(가장 주된 것)**

(단위: %, 명)

| 구 분 | 어린이집 유치원 | 학원, 놀이방 등 시설 | 베이비시터 | 조부모 | 기타 친인척 | 부모 | 기타 | 계(명) |
|---|---|---|---|---|---|---|---|---|
| 전체 | 39.7 | 2.4 | 0.9 | 6.3 | 0.5 | 50.2 | 0.1 | 100.0(2,059) |
| 맞벌이[1] | | | | | | | | |
| 맞벌이 | 54.5 | 3.4 | 2.1 | 15.0 | 1.3 | 23.7 | - | 100.0( 706) |
| 비맞벌이 | 32.0 | 1.8 | 0.2 | 1.7 | 0.1 | 64.0 | 0.1 | 100.0(1,353) |
| 가구소득수준[2] | | | | | | | | |
| 60%미만 | 43.3 | 1.4 | 0.3 | 2.8 | - | 51.6 | 0.7 | 100.0( 289) |
| 60~80%미만 | 33.8 | 1.9 | - | 1.3 | 0.6 | 62.4 | - | 100.0( 479) |
| 80~100%미만 | 40.2 | 1.4 | 0.2 | 3.7 | - | 54.5 | - | 100.0( 433) |
| 100~120%미만 | 45.6 | 3.8 | - | 4.9 | 0.7 | 44.9 | - | 100.0( 287) |
| 120~140%미만 | 37.0 | 2.6 | 1.1 | 13.8 | 1.1 | 44.4 | - | 100.0( 189) |
| 140~160%미만 | 45.0 | 4.2 | 1.7 | 14.2 | 0.8 | 34.2 | - | 100.0( 120) |
| 160%이상 | 39.6 | 3.1 | 4.2 | 16.2 | 1.2 | 35.8 | - | 100.0( 261) |

주: 1) 여기에서 맞벌이 가구는 부부 모두가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가구이며, 비맞벌이에는 홑벌이 부부가구, 한부모, 미혼모 등이 포함되어 있음.
2) 가구소득은 2015년 2/4분기 가구당 월평균 소득(427만원)을 100%로 하여 분석하였음.
3) 무응답은 분석에서 제외되었으며, 승수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자료: 이삼식 외(2015)., 2015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영아(0~2세) 자녀의 주된 주간 돌봄 방식으로 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경우(표 5), 그 이유는 사회성 발달(30.5%)과 전인적 발달(29.9%) 등 아동의 발달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60.4%로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는 '부모의 취업활동으로 직접 돌봄이 어려워(29.4%)', '같이 놀 아이들이 없어서(6.8%)'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맞벌이가구인 경우와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취업 등으로 인한 부모의 직접 돌봄 곤란으로 시설을 이용하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영아(0~2세) 자녀를 주간에 시설에 보내지 않고 인적자원을 통하여 돌보고 있는 경우, 그 이유는 '아이가 너무 어려서'가 70.6%로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는 '직접 키우는 것이 정서 발달 등에 좋을 것 같아서(18.0%)' 등으로 나타났다. 맞벌이가구인 경우 약 80% 정도는 아이가 너무 어려서 시설을 이용하지 않고 인적자원을 통하여 가정양육을 실시하고 있었다. 이러한 경향은 전국 월 평균가구소득의 140%이상의 고소득계층에게서도 유사하게 나타났다. 이들의 경우 아이의 연령으로 시설 이용을 꺼려하면서도 부모의 직접 돌봄은 한계가 있어 조부모나 베이비시터 등의 인적자원을 통해 돌봄 욕구를 해소해나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비맞벌이가구인 경우에는 직접 돌봄에 대한 선호로 자녀를 시설에 보내지 않았다고 응답한 비율이 맞벌이가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표 5. 기혼여성(15~49세)의 가구특성별 영아(0~2세) 자녀(막내아 기준) 주된 주간 돌봄 방식으로 시설 이용 및 미이용 이유**

(단위: %, 명)

| 구 분 | 시설 이용 이유 | | | | | | 시설 미이용 이유 | | | | |
|---|---|---|---|---|---|---|---|---|---|---|---|
| | 아이의 전인적 발달을 위해서 | 취업 등으로 부모가 돌보기 어려워서 | 사회성 발달을 위하여 | 같이 놀 아이들이 없어서 | 기타 | 계(명) | 굳이 맡길 이유가 없어서 | 아이가 너무 어려서 | 직접 돌봄이 정서발달 등에 좋을 것 같아서 | 기타 | 계(명) |
| 전체 | 29.9 | 29.4 | 30.5 | 6.8 | 3.4 | 100.0(867) | 8.4 | 70.6 | 18.0 | 3.0 | 100.0(1,193) |
| 맞벌이[1)] | ($x^2$=239.6***) | | | | | | ($x^2$=15.3**) | | | | |
| 맞벌이 | 21.0 | 54.5 | 19.8 | 2.7 | 2.0 | 100.0(409) | 7.8 | 78.7 | 10.8 | 2.7 | 100.0( 296) |
| 비맞벌이 | 37.8 | 7.0 | 40.0 | 10.7 | 4.6 | 100.0(458) | 8.6 | 68.0 | 20.4 | 3.0 | 100.0( 896) |

| 구 분 | 시설 이용 이유 | | | | | | 시설 미이용 이유 | | | | |
|---|---|---|---|---|---|---|---|---|---|---|---|
| | 아이의 전인적 발달을 위해서 | 취업 등으로 부모가 돌보기 어려워서 | 사회성 발달을 위하여 | 같이 놀 아이들이 없어서 | 기타 | 계(명) | 굳이 맡길 이유가 없어서 | 아이가 너무 어려서 | 직접 돌봄이 정서발달 등에 좋을 것 같아서 | 기타 | 계(명) |
| 가구소득수준[2] | | | | | | | | ($x^2$=40.4**) | | | |
| 60%미만 | 40.6 | 7.8 | 36.7 | 9.4 | 5.5 | 100.0(128) | 6.3 | 71.3 | 18.1 | 4.4 | 100.0( 160) |
| 60~80%미만 | 30.0 | 20.6 | 32.9 | 11.2 | 5.3 | 100.0(170) | 8.7 | 67.0 | 20.1 | 4.2 | 100.0( 309) |
| 80~100%미만 | 30.9 | 28.2 | 33.1 | 4.4 | 3.3 | 100.0(181) | 7.5 | 72.0 | 18.5 | 2.0 | 100.0( 254) |
| 100~120%미만 | 25.4 | 37.3 | 30.3 | 5.6 | 1.4 | 100.0(142) | 16.4 | 55.5 | 26.0 | 2.1 | 100.0( 146) |
| 120~140%미만 | 27.6 | 35.5 | 28.9 | 6.6 | 1.3 | 100.0( 76) | 7.0 | 76.3 | 14.0 | 2.6 | 100.0( 114) |
| 140~160%미만 | 20.7 | 53.4 | 15.5 | 6.9 | 3.4 | 100.0( 58) | 5.0 | 80.0 | 10.0 | 5.0 | 100.0( 60) |
| 160%이상 | 28.8 | 43.2 | 24.3 | 2.7 | 0.9 | 100.0(111) | 6.0 | 80.1 | 11.9 | 2.0 | 100.0( 151) |

* p<0.05, ** p<0.01, *** p<0.001

주: 1) 여기에서 맞벌이 가구는 부부 모두가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가구이며, 비맞벌이에는 홑벌이 부부가구, 한부모, 미혼모 등이 포함되어 있음.
2) 가구소득은 2015년 2/4분기 가구당 월평균 소득(427만원)을 100%로 하여 분석하였음.
3) 무응답은 분석에서 제외되었으며, 승수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자료: 이삼식 외(2015)., 2015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앞서 3세 이상의 경우 대부분이 주간 돌봄 방식으로 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그 이유로는 사회성 발달(40.0%)이나 아이의 전인적 발달(32.1%) 등 아동의 발달과 연계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패턴은 기혼여성의 가구특성에 관계없이 유사하게 나타났다. 다만, 맞벌이가구나 가구소득수준이 높은 경우에는 취업 등으로 부모가 돌보기 어려워 시설을 이용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어, 시설의 보육서비스가 부모의 일·가정양립을 지원하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표 6. 기혼여성(15~49세)의 가구특성별 3세~취학전 자녀(막내아 기준)의 주된 주간 돌봄 방식으로 시설 이용 이유**

(단위: %, 명)

| 구 분 | 아이의 전인적 발달을 위해서 | 초등학교 준비를 위하여 | 취업 등으로 부모가 돌보기 어려워서 | 사회성 발달을 위하여 | 같이 놀 아이들이 없어서 | 기타 | 계(명) |
|---|---|---|---|---|---|---|---|
| 전체 | 32.1 | 9.1 | 9.7 | 40.0 | 3.2 | 5.8 | 100.0(1,628) |
| 맞벌이[1](χ²=149.8***) | | | | | | | |
| 맞벌이 | 32.8 | 7.8 | 18.6 | 33.3 | 2.2 | 5.4 | 100.0( 784) |
| 비맞벌이 | 31.5 | 10.3 | 1.4 | 46.3 | 4.1 | 6.3 | 100.0( 844) |
| 가구소득수준[2](χ²=63.3***) | | | | | | | |
| 60%미만 | 32.9 | 10.3 | 6.1 | 41.3 | 3.3 | 6.1 | 100.0( 213) |
| 60~80%미만 | 33.2 | 10.5 | 4.6 | 42.5 | 5.5 | 3.7 | 100.0( 325) |
| 80~100%미만 | 32.2 | 8.4 | 9.2 | 41.6 | 2.7 | 5.9 | 100.0( 370) |
| 100~120%미만 | 27.1 | 8.8 | 12.5 | 42.5 | 1.8 | 7.3 | 100.0( 273) |
| 120~140%미만 | 33.9 | 8.1 | 12.1 | 37.9 | 3.2 | 4.8 | 100.0( 124) |
| 140~160%미만 | 33.9 | 8.9 | 16.1 | 38.7 | 2.4 | - | 100.0( 124) |
| 160%이상 | 34.2 | 7.1 | 14.3 | 30.6 | 2.6 | 11.2 | 100.0( 196) |

* p<0.05, ** p<0.01, *** p<0.001

주: 1) 여기에서 맞벌이 가구는 부부 모두가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가구이며, 비맞벌이에는 홀벌이 부부가구, 한부모, 미혼모 등이 포함되어 있음.
2) 가구소득은 2015년 2/4분기 가구당 월평균 소득(427만원)을 100%로 하여 분석하였음.
3) 무응답은 분석에서 제외되었으며, 승수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자료: 이삼식 외(2015)., 2015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2) 초등학교 저학년(1~3학년) 자녀의 방과 후 돌봄 실태

초등학교 저학년(1~3학년) 자녀를 방과 후에 맡기는 곳·사람(1순위)[3]은 학원이 59.9%로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 초등학교 방과후프로그램(30.9%), 부모(5.0%)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학년이 낮을수록 초등학교 방과후프로그램을 이용하는 비율이 높고, 학년이 높을수록 학원을 이용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3) 출산력 조사에서는 초등학교 저학년 자녀의 방과후 돌봄 방식을 파악하기 위하여 자녀를 방과후에 실제 맡기는 기관 또는 사람을 질문하고 있다. 만약 여러 기관(또는 사람)을 이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가장 많은 시간 동안 자녀를 맡기고 있는 기관 또는 사람을 응답하도록 하고 있다.

### 표 7. 초등학교 저학년 자녀의 방과 후 실제 맡긴 곳·사람(1순위, 아동 기준)

(단위: %, 명)

| 구 분 | 초등학교 방과후 프로그램 | 학원 | 기타 기관 | 베이비시터 | 조부모 | 기타 친인척 | 부모 | 아이혼자/형제자매/기타 | 계(명) |
|---|---|---|---|---|---|---|---|---|---|
| 전체 | 30.9 | 59.9 | 2.6 | 0.2 | 0.5 | 0.0 | 5.0 | 0.8 | 100.0(2,495) |
| 아동학년 | | | | | | | | | |
| 1학년 | 36.9 | 52.8 | 2.6 | 0.4 | 0.2 | - | 6.5 | 0.6 | 100.0( 845) |
| 2학년 | 31.5 | 61.0 | 2.1 | - | 0.5 | 0.1 | 3.9 | 0.9 | 100.0( 816) |
| 3학년 | 24.2 | 66.0 | 3.2 | 0.1 | 0.8 | - | 4.7 | 1.0 | 100.0( 835) |

주: 무응답은 분석에서 제외되었으며, 승수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자료: 이삼식 외(2015)., 2015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초등학교 저학년(1~3학년) 자녀의 방과 후 돌봄 방식(1순위)으로 시설을 이용하는 비율은 맞벌이가구(95.8%)가 비맞벌이가구(91.6%)에 비해 다소 높게 나타났다. 시설 중에서도 학원이나 기타 기관을 이용하는 비율이 맞벌이가구에게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기관 이용 시 초등학교 방과후프로그램보다 학원에 대한 이용 비율이 높게 나타난 것은 방과후 프로그램에 대한 접근성, 운영시간, 프로그램, 만족도 등의 차원에서 이용 제약이 있음을 의미하는 결과일 것이다. 초등학교 저학년의 방과후돌봄과 관련하여 개인의 사적비용에만 의존하기보다 공적인 방과후학교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 제고와 질적 수준 제고에 노력할 필요가 있다. 특히, 이러한 노력은 맞벌이가구에 우선순위를 두고 경주할 필요가 있겠다.

### 표 8. 기혼여성(15~49세)의 가구특성별 초등학교 저학년 자녀(취학자녀 중 가장 어린 자녀 기준)의 방과 후 실제 맡긴 곳·사람(1순위)

(단위: %, 명)

| 구 분 | 초등학교 방과후 프로그램 | 학원 | 기타 기관 | 베이비시터 | 조부모 | 기타 친인척 | 부모 | 아이혼자/형제자매/기타 | 계(명) |
|---|---|---|---|---|---|---|---|---|---|
| 전체 | 31.3 | 60.3 | 2.2 | 0.1 | 0.4 | 0.1 | 5.1 | 0.8 | 100.0(2,258) |
| 맞벌이[1)] | | | | | | | | | |
| 맞벌이 | 30.9 | 61.8 | 3.1 | 0.1 | 0.4 | 0.1 | 2.9 | 0.7 | 100.0(1,091) |
| 비맞벌이 | 31.5 | 58.8 | 1.3 | 0.3 | 0.3 | - | 7.0 | 0.9 | 100.0(1,166) |

주: 1) 여기에서 맞벌이 가구는 부부 모두가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가구이며, 비맞벌이에는 홑벌이 부부가구, 한부모, 미혼모 등이 포함되어 있음.
2) 무응답은 분석에서 제외되었으며, 승수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자료: 이삼식 외(2015)., 2015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초등학교 저학년(1~3학년) 자녀를 방과 후에 시설에 맡기는 경우, 그 이유로는 '장래 학업에 도움이 되기 위해(36.9%)', '특기교육(23.9%)', '아이의 전인적 발달(16.1%)' 등 아이의 교육이나 발달을 위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경향은 맞벌이 여부에 따라서도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다. 다만, 부모의 취업 등에 따른 돌봄 공백으로 시설을 이용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맞벌이가구(13.7%)에게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표 9. 기혼여성(15~49세)의 초등학교 취학(1~3학년) 자녀를 방과 후 기관에 맡기는 이유[1)]**

(단위: %, 명)

| 구 분 | 아이의 전인적 발달 | 중고등학교 준비 | 특기교육 | 취업 등으로 부모 돌봄 곤란 | 사회성 발달 | 장래 학업 | 기타 | 계(명) |
|---|---|---|---|---|---|---|---|---|
| 초등학교 저학년(1~3학년) | 16.1 | 3.2 | 23.9 | 8.0 | 9.3 | 36.9 | 2.5 | 100.0(2,175) |
| 맞벌이[2)]($x^2$=140.8***) | | | | | | | | |
| 맞벌이 | 13.4 | 2.4 | 21.2 | 13.7 | 8.7 | 37.6 | 3.0 | 100.0(1,069) |
| 비맞벌이 | 18.7 | 3.9 | 26.5 | 2.6 | 10.0 | 36.2 | 2.1 | 100.0(1,105) |

주: 1) 방과 후에 초등학교 방과후프로그램, 학원, 기타 기관을 이용하고 있다고 응답한 경우에 한하여 질문함.
2) 여기에서 맞벌이 가구는 부부 모두가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가구이며, 비맞벌이에는 홀벌이 부부가구, 한부모, 미혼모 등이 포함되어 있음.
3) 무응답은 분석에서 제외되었으며, 승수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자료: 이삼식 외(2015)., 2015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나. 실제 돌봄방식과 바람직한 돌봄 방식 간의 일치도

이하에서는 유자녀 기혼여성(15~49세)이 실제 이용하는 돌봄 방식과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돌봄 방식[4)]간의 일치도(이하 일치도)를 분석하도록 한다. 다만 여기에서 사례수가 30명 미만으로 충분치 않은 것은 참고로만 제시하고 분석은 생략하였다.

영아(0~2세) 자녀의 돌봄에 대한 일치도로서 어린이집·유치원의 경우 74.3%로 나타났다. 실제로는 어린이집·유치원 등 시설 돌봄을 이용하고 있으나, 17.5%는 부모의 직접 돌봄, 6.4%

4) 출산력 조사에서는 유자녀 기혼여성을 대상으로 미취학, 초등학교 취학 자녀 각각에 대하여 해당 아동을 맡기기에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기관이나 사람에 대하여 질문하였다. 미취학 자녀의 경우에는 주간(오후 7시 30분 이전)에 맡기기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기관 또는 사람(가장 주된 것 한 가지)을 그리고 초등학교 취학 자녀에 대해서는 방과후에 맡기기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기관 또는 사람(1순위)에 대하여 응답하도록 하고 있다.

는 조부모에 의한 돌봄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학원·놀이방의 일치도는 37.7%로 나타났으며, 실제 학원 및 놀이방을 이용하고 있으나 28.3%는 부모의 직접 돌봄, 그리고 24.5%는 어린이집·유치원 등의 시설이용을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조부모에 대한 일치도는 54.8%이며, 37.8%는 조부모의 도움을 받고 있으나 부모가 직접 자녀를 돌보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요컨대, 영아의 경우 어린이집·유치원 및 부모에 대한 일치도는 상대적으로 높고, 기타 인적 돌봄의 일치도는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나고 있다.

유아(3세~취학 전) 자녀의 주간 돌봄 방식에 대한 일치도는 어린이집·유치원이 88.5%로 비교적 높게 났으나, 학원 및 놀이방 등 기타 시설은 42.3%로 낮게 나타났다. 학원이나 놀이방 등의 시설을 실제 이용하고 있으나 어린이집 및 유치원 등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46.5%로 나타났다. 한편, 부모의 직접 돌봄에 대한 일치도는 58.6%로 나타났고, 34.5%는 부모가 직접 돌보고 있으나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돌봄은 어린이집 및 유치원 등의 시설이라고 응답하였다.

**표 10. 초등학교 취학 전 자녀의 주간 돌봄 방식에 대한 수급 일치도(가장 주된것, 아동 기준)**

(단위: %, 명)

| 구 분 | 바람직한 곳(사람) | | | | | | | 계(명) |
|---|---|---|---|---|---|---|---|---|
| | 어린이집 유치원 | 학원, 놀이방 등 시설 | 베이비 시터 | 조부모 | 기타 친인척 | 부모 | 기타 | |
| 영아(0~2세) | | | | | | | | |
| 실제 이용하는 곳(사람) | | | | | | | | |
| 어린이집, 유치원 | 74.3 | 0.5 | 0.9 | 6.4 | 0.3 | 17.5 | - | 100.0( 978) |
| 학원, 놀이방 등 시설 | 24.5 | 37.7 | - | 9.4 | - | 28.3 | - | 100.0( 53) |
| 베이비시터 | 5.3 | 5.3 | 26.3 | 10.5 | - | 52.6 | - | 100.0( 19) |
| 조부모 | 4.4 | 1.5 | 1.5 | 54.8 | - | 37.8 | - | 100.0( 135) |
| 기타 친인척 | 7.7 | - | 7.7 | 7.7 | 38.5 | 38.5 | - | 100.0( 13) |
| 부모 | 9.9 | 1.5 | 1.7 | 6.7 | 0.3 | 79.9 | - | 100.0(1,069) |
| 기타 | - | - | - | - | - | 100.0 | - | 100.0( 2) |
| 유아(3세~취학전) | | | | | | | | |
| 실제 이용하는 곳(사람) | | | | | | | | |
| 어린이집, 유치원 | 88.5 | 0.3 | 0.3 | 4.9 | 0.1 | 5.8 | 0.1 | 100.0(2,646) |
| 학원, 놀이방 등 시설 | 46.5 | 42.3 | - | 2.8 | - | 8.5 | - | 100.0( 71) |
| 베이비시터 | - | - | 50.0 | - | - | 50.0 | - | 100.0( 2) |
| 조부모 | - | - | - | 100.0 | - | - | - | 100.0( 1) |
| 부모 | 34.5 | 5.2 | - | 1.7 | - | 58.6 | - | 100.0( 58) |

주: 1) 무응답은 분석에서 제외되었음.
2) 음영 부분은 수급이 일치함을 의미함.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5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 원자료 분석

종합하면, 영아(0~2세) 자녀의 경우 돌봄 방식에 대한 실제와 기대 간의 일치도는 어린이집·유치원과 부모의 경우 70% 정도로 나타났다. 일치하지 않는 비율(불일치도)의 대부분은 부모의 직접 돌봄이 이루어지지 못한데 기인하고 있다. 유아기(3세~취학 전)자녀의 경우 어린이집·유치원에 대한 일치도는 90%에 가까이 나타났다. 이는 자녀의 성장에 따라 사회성 발달 등을 이유로 시설의존도가 높아짐을 시사한다. 다만, 다른 한편으로는 실제로는 학원 등의 기타 시설을 이용하거나 부모가 직접 돌보고 있으나 어린이집·유치원을 이용하길 희망하는 비율은 30~40% 정도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결과들은 어린이집·유치원 등 시설에 의해 어느 정도 영유아 자녀의 주간 돌봄의 공백을 메우고 있으나 여전히 사각지대가 존재하고 있으며, 부모에 의한 직접 돌봄에 대한 희망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일·가정양립 수준 등이 제고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초등학교 저학년(1~3학년) 자녀의 방과후 돌봄 방식으로서 초등학교 방과후프로그램의 일치도는 71.7%로 나타났다. 학원의 일치도는 68.8%이며, 13.5%는 실제로는 학원을 이용하고 있으나 초등학교 방과후프로그램을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타 기관에 대한 일치도는 34.8%이며, 이들 중 30.3%는 학원, 10.6%는 초등학교 방과후프로그램을 이용하길 희망하고 있다. 부모의 직접 돌봄 방식의 일치도는 70.1%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이들 중 15.0%는 학원, 9.4%는 초등학교 방과후프로그램을 이용하길 희망하고 있다.

종합하면 초등학교 저학년 자녀의 경우 돌봄 방식에 대한 실제와 기대 간의 일치도는 초등학교 방과후프로그램과 부모의 경우 70% 정도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불일치가 발생하는 돌봄 방법으로는 초등학교 방과후프로그램, 학원, 부모 등 다양하게 나타났다. 초등학교 방과후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접근성, 운영시간, 프로그램 등 다양한 차원에서 개선하여 공적 돌봄서비스를 이용하고 싶은 가구의 욕구를 충족시켜 줄 필요가 있을 것이다. 또한 일·가정양립 활성화 등을 통해 부모의 직접 돌봄을 희망하는 가구를 지원할 필요가 있다.

**표 11. 초등학교 저학년 자녀의 돌봄 방법 수급 일치도(1순위, 아동기준)**

(단위: %, 명)

| 구 분 | 바람직한 곳(사람) | | | | | | | | 계(명) |
|---|---|---|---|---|---|---|---|---|---|
| | 초등학교 방과후 프로그램 | 학원 | 기타 기관 | 베이비시터 | 조부모 | 기타 친인척 | 부모 | 아이 혼자/형제자매/기타 | |
| 초등학교 저학년(1~3학년) | | | | | | | | | |
| 실제 이용하는 곳(사람) | | | | | | | | | |
| 초등학교 방과후 프로그램 | 71.7 | 11.5 | 1.9 | 0.5 | 5.2 | - | 8.8 | 0.3 | 100.0( 771) |
| 학원 | 13.5 | 68.8 | 2.4 | 0.6 | 4.4 | 0.3 | 9.8 | 0.3 | 100.0(1,494) |
| 기타 기관 | 10.6 | 30.3 | 34.8 | 3.0 | 4.5 | - | 16.7 | - | 100.0( 66) |
| 베이비시터 | 50.0 | 25.0 | - | 25.0 | - | - | 0.0 | - | 100.0( 4) |
| 조부모 | 7.7 | - | - | - | 53.8 | - | 38.5 | - | 100.0( 13) |
| 기타 친인척 | - | - | 100.0 | - | - | - | 0.0 | - | 100.0( 1) |
| 부모 | 9.4 | 15.0 | - | - | 3.9 | - | 70.1 | 1.6 | 100.0( 127) |
| 아이 혼자/형제자매/기타 | 10.0 | 25.0 | - | - | - | - | 35.0 | 30.0 | 100.0( 20) |

주: 음영 부분은 수급이 일치함을 의미함.
자료: 이삼식 외(2015)., 2015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4. 나가며

본 고에서는 아동의 성장단계에 따른 자녀돌봄실태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부부 간 육아 분담에서 여전히 여성이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있었다. 우리나라의 경우 여전히 가정 내 그리고 직장 내에서 전통적 성 역할 분업의 문화가 잔존해 있다. 남성은 여전히 직장 내에서 장시간 근로 등을 요구받고 있으며, 이들의 육아참여에 대해서는 우호적이지 않는 경향이 있다. 자녀양육의 주체로서는 자의적 혹은 타의적으로 여성으로 인식되는 경향도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부부간 육아 분담의 절대적 양이 완벽히 공평해질 수는 없을 것이다. 그 가구의 상황 등에 따라 공평에 대한 기준이나 인식 정도가 상이하기 때문이다. 실제 최근에 결혼한 코호트일수록 남편과 육아가 공평하게 분담되고 있다고 인지하는 비율은 높아지고 있다. 현재 우리 사회는 양성평등 사회로 넘어가는 과도기적 단계에 위치하고 있을 것이다. 따라서 국가, 사회, 직장, 가족 등 모든 영역에서 양성평등을 위한 노력을 보다 경주할 필요가 있다.

자녀가 있는 기혼여성의 1/4정도는 자녀의 돌봄을 위해 친정 또는 시부모님으로부터 자녀 돌봄을 지원받고 있으며, 이와 동시에 이들 대부분은 부모에게 경제적 지원을 하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육아경험이 적거나 자녀가 어릴수록 높게 나타났으며, 특히 취업여성에게서 더욱 크게 나

타났다. 자녀가 어려 시설을 이용하기 어려운 경우 인적 네트워크 등을 활용하고 있는 것이다. 이들 가구의 돌봄 방식에 대한 보다 심층적인 조사를 통해 정책적 고려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미취학 자녀의 돌봄 방식에 대한 실제와 기대 간의 일치도는 어린이집·유치원의 경우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나, 그 외 혈연 및 비혈연의 인적 돌봄에 대한 일치도는 절반 또는 그 이하로 나타났다. 영아 자녀를 둔 경우에는 실제 시설이나 혈연 자원을 통해 자녀를 돌보고 있으나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돌봄 방식은 부모의 직접 돌봄인 경우가 1/3정도로 나타났다. 이는 경제활동 등 여러 이유로 직접 돌봄이 어려워 다른 방식을 활용하는 것을 의미하며, 이들의 경우 여러 돌봄서비스에 대한 접근도가 자녀 양육에 중요한 자원이 될 것이다. 이들을 위해서는 다양한 수요를 고려한 돌봄서비스 확충과 함께 일·가정양립 제고를 통한 부모의 직접 돌봄 지원 등을 위한 노력이 경주될 필요가 있다. 유아 자녀를 학원·놀이방 등 기타 시설에 맡기는 경우와 부모가 직접 돌보는 경우 중 30~40%는 어린이집·유치원 이용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어린이집·유치원 등을 이용하지 않는 요인에 대하여 희망과 달리 실제 다양한 차원에서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초등학교 저학년 자녀의 경우 초등학교 방과후프로그램, 학원, 부모의 직접 돌봄에 대한 일치도는 70%정도로 나타났다. 실제로는 학원을 이용하거나 부모가 직접 돌보고 있으나, 초등학교 방과후프로그램을 이용하길 희망하는 경우도 10% 정도로 나타나는데, 취학 자녀의 공적 돌봄 체계로서 방과후프로그램에 대한 접근성, 질적 수준 확보 등을 위한 노력이 경주될 필요가 있겠다. 요컨대, 돌봄 방식에 대한 불일치의 원인에 대해서는 보육서비스 공급 방식뿐만 아니라 서비스, 만족도 등 다양한 측면을 고려하여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자녀양육가정의 다양한 돌봄 수요에 대응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앞으로도 가족형태의 다양화, 여성 노동시장 참여 증가, 고용형태 다양화, 생활패턴 변화 등으로 돌봄 서비스에 대한 욕구는 더욱 다양해질 것이다. 아동 돌봄은 개별 가구의 문제로만 국한되지 않는다는 차원에서 자녀 양육가정의 특성별 돌봄서비스에 대한 욕구(형태, 시간, 비용, 질적 수준 등)를 정확히 파악하고 관련 정책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돌봄에 대한 부담을 해소해 나갈 필요가 있다.